

무쓰레지마 섬 등대

이 등대는 간몬 해협 서쪽에 떠 있는 작은 섬에 서 있습니다. 무쓰레지마 섬 등대는 해협의 동쪽에 있는 헤사키 등대와 함께 '쌍둥이 등대'로 불리며, 모두 1871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등대 중 하나입니다. '일본 등대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처드 H. 브런튼(1841~1901)이 메이지 정부의 의뢰로 설계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이러한 고문, 지도자, 기술자가 해외에서 다수 초빙되었습니다.

이 등대는 현재도 근처에 남아 있는 석조 초표(암초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축물)와 함께 간몬 해협을 오가는 수많은 국제 무역선을 안내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협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공헌해 온 등대이지만, 그 탄생은 국제 분쟁이 계기였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말기 서일본에서는 외국 세력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조슈번(현재 야마구치현의 일부)은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과 유럽의 배에 대포를 겨눴고, 구미 강대국은 이에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1864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의 연합군이 포격을 가하며 시모노세키의 마을을 침공했고 조슈는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승국은 일본에 더 많은 항구를 외국 무역을 위해 개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 등대를 포함한 몇 개의 등대가 중요한 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